



## 박태환 예감이 좋다 최다관왕 도전

지난 9일 결전의 무대에 입성한 '마린보이' 박태환이 광주 아쿠아티센터에서 현지 첫 훈련을 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 7개 종목 출전... 자유형 200·400·1500m 3관왕 넘어 100m·단체전도 기대

박태환(21·단국대)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총 7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14일 자유형 200m에 이어 15일 계영 800m, 16일 자유형 400m와 계영 400m, 17일 자유형 100m에 이어 18일 자유형 1500m 및 혼계영 400m를 뛴다.

3관왕으로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던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 때와 같다. 박태환은 당시 자유형 200·400·1500m에서 금메달을 따 3관왕이 됐다.

자유형 100m에서도 은메달을 따고, 단체전인 계영 400·800m, 혼계영 400m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며 7개 출전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했다.

광저우에서도 7개 종목 모두 메달권에 들어 있다. 금메달 역시 4년 전 3개보다 더 많이 따겠다는 복안이다.

◇자유형 200·400m '2연패 유력'  
박태환은 주 종목인 자유형 200·400m에서 대회 2회 연속 우승 꿈을 부풀리고 있다. 두 종목에서 박태환은 올해 아시아 랭킹 1위다. 특히 자유형 400m에서는 지난 8월 열린 2010 팬퍼시픽선수권대회 때 3분44초73으로 우승하며 세계 1위 자리까지 되찾았다. 자유형

400m는 박태환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던 종목으로 개인 최고 기록 경신까지 기대할 만큼 금메달이 유력하다.

경쟁자는 장린과 쑨양(이상 중국)이다. 장린과 쑨양은 올해 자유형 400m에서 각각 3분44초91과 3분45초22의 기록을 내 박태환에 이어 세계 랭킹 2·3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최근 박태환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띈다. 박태환은 광주로 들어오기 직전 훈련에서 350m까지는 50m 구간을 각각 27초 초반대에 해업치고, 마지막 50m는 26초 안에 들어왔다. 개인 최고 기록(3분41초86)은 물론 파울 비터만(독일)이 지난해 최첨단 수영복을 입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운 세계 기록(3분40초07)도 넘볼만한 상황이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도 팬퍼시픽대회 때 베이징 올림픽 이후 개인 최고 기록(1분46초27)으로 은메달을 따면서 아시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자유형 200m에서는 일본 마쓰다가 경쟁자다. 남자 접영 200m 아시아 기록(1분52초97) 보유자인 마쓰다의 올해 자유형 200m 최고 기록은 1분47초01이다.  
◇자유형 100m '해 볼만'  
자유형 100m와 1500m는 금메달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아시아 랭킹에서도 6위로 처진

자유형 1500m에는 15명밖에 출전하지 않지만 대회 2연패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태환은 올해 팬퍼시픽선수권대회 때 15분 13초91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올해 세계 랭킹 1위인 쑨양(14분47초46)에게 26초 넘게 뒤지고, 세계 6위이자 아시아 2위인 장린(14분58초90)보다도 약 15초나 처진다.

박태환은 오히려 자유형 100m 우승으로 3관왕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박태환의 올해 자유형 100m 아시아 랭킹은 3위다.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빨랐던 것은 아시아 최고 기록(48초49)을 가진 후지 다쿠모(일본)로 지난 4월 자국 대회에서 49초12의 성적을 냈다.

◇단체전은 동메달  
단체전에서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세 종목 모두 동메달권이다.

남자 계영 400·800m, 혼계영 400m 모두 아시아 기록을 가진 일본은 물론 중국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계영 800m에서 중국을 꺾고 은메달을 차지해보는 것이 대표팀의 바람이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경영 종목 단체전에서 낸 최고 성적은 1990년 베이징 대회 여자 계영 400m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남자 계영 800m에서 쟁긴 은메달이다. /연합뉴스



**박태환**  
수영

- 출생 1989. 9. 27
- 신장 183cm
- 체중 74kg
- 소속 SK한국대학교
- 주요 경력

2006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3분44초30, 한국 최초 세계선수권 우승) · 200m 동메달

2007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 · 1500m 동메달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 · 200m 은메달

2009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100m · 200m · 400m 우승

2010 팬퍼시픽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 · 200m 은메달

## 홍명보호 4골 폭발

구자철 2골·박주영 환상적 어시스트... 요르단 대과

북한과 1차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을 제물로 조별리그 첫 승리를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중국 광저우 웨슈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캡틴' 구자철(제주)이 전반에 결승골과 추가골을 넣고, 김보경(오이타)과 조영철(니카타)이 후반에 나란히 한 골씩 터뜨려 4-0으로 완승했다.

와일드카드로 우여곡절 끝에 합류한 박주영(모나코)은 조영철의 마지막 골을 어시스트해 24년 만의 우승 도전에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승리로 1승1패(승점 3)가 된 한국은 오는 13일 C조에서 최약체로 손꼽히는 팔레스타인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있어 16강 진출이 무난할 전망이다.

전반 21분 지동원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내준 볼을 김보경(오이타)이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뒤로 흘려주자 2선에서 도사리던 구자철이 강력한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중거리슛으로 요르단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첫 골의 흥분이 가라앉을 무렵 구자철의 발끝이 또 한 번 매섭게 몰아쳤다. 전반 44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키커로 나선 구자철은 오른쪽 인사이드 킥으로 감아 찼고, 볼은 강하게 휘면서 요르단 골대 오른쪽 구석에 박혀 사실상 승리를 결정지었다.

승부가 기울자 홍명보 감독은 후반 17분 김보경을 빼고 '와일드카드' 스트라이커 박주영(모나코)을 투입했다. 박주영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후배들과 발을 맞출 기회를 준 것이다.

박주영은 후반 18분 왼쪽 측면을 공략해 크로스를 올리고, 1분 뒤 과감한 중거리포를 날리는 등 감각을 끌어올렸다.

후반 33분 터진 한국의 네 번째 골은 박주영의 기막힌 패스가 바탕이 됐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윤빛가람(경남)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골 지역 정면에 있던 박주영이 감각적인 논스톱 힐패스로 볼을 흘렸다.

조영철은 박주영의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마무리골을 완성해 화려한 골 잔치의 대미를 장식했다. /연합뉴스

### ■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 이기훈단장, 북 선수단 만남 제의

○한국 선수단의 이기훈 단장이 북한 선수단에 만남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10일 "북한 선수단에 공식적으로 연락해 만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경기장에서 북측과 조우하면 반드시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6년 도하아시안 게임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공동 입장을 했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공동 입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 北 탁구 등 19개종목 188명 참가

○북한 선수단이 10일 선수촌에 공식 입촌했다. 45개 참가국 중 15번째로 치러진 이날 입촌식에는 남자농구와 여자배구, 남녀 유도, 탁구 등 종목의 8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 종목에 199명이 참가 신청을 했지만 지난 6일 체조가 국제체조연맹(FIG)으로부터 2년

간 출전금지 처분을 당해 19개 종목 188명으로 줄었다.

#### 중국 통산 1000번째 금 눈앞

○중국이 아시안게임 통산 1000 번째 금메달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은 2006년 도하 대회까지 모두 992개의 금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천 개를 넘길 것이 확실하다. 이 부문 2위는 860개의 일본이고 한국은 541개를 따내 3위다. 전체 메달 수에서는 일본이 2435개로 가장 많아 이번 대회에서 2500개 메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이 2138개로 뒤를 쫓고 있고 3위는 1598개를 따낸 한국이다.

#### 수영 박태환 도핑테스트 바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역대 최대 규모의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OCA는 10일 이번 대회에서 1천500회의 도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태환 등 수영선수 3명이 9일 저녁 선수촌에 도착하자마자 혈액 검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24시간 운영

골프존 GOLFZON

아프리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OPEN

광주에 이런 스크린 골프존은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OPEN 기념 등록회원특전  
· 골프존 대형틀 6일  
· 좌타시설  
· 단체팀 부탕가능  
· 연습장 12타석

· 전자석 분석 시스템  
· 클럽 무료 대여  
· 홀인원 이벤트  
· 온라인 골프대회

예약문의 : 062)671-8900

HALLA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 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 시장에서 배송할 때도~ 공장, 창고에서도~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월 전기료 5,000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취급점 · 영업사원 · 딜러모집  
농기계 관련 사업자 · 유사업종 경험자

차별화된 안전과 실용성

· 버튼식, 다이얼식 조작패널, 배터리 잔량 표시 램프  
· 초절전 고효율 LED 전등, 방향지시등 채택  
· 물품 수납이 가능한 시트박스  
· 고강도 안전 캐노피 적용(음션 사항)

· 한변 충전시 50km 운행  
· 최대 200kg까지 적재 가능

원벽한 사후 관리 시스템

· 국내 제조 생산을 통한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  
· 전국 A/S 네트워크를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

장기저리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장기저리융자,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한라웰스텍(주) TEL 062-956-8823 · 061-852-8896 H.P 010-9468-3282